

“가장 멋진 작별 인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박○○ (M/80)
- 종교: 무교
- 진단명: 흑색종
- 과거력: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심장질환(부정맥)
- 입원 경과: 2021년 4월 초 검단탑병원에서 왼쪽 발꿈치에 흑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하였다가 흑색종암 발견되어 인천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재검사받음. 인천성모병원에서 흑색종암 말기 진단과 함께 폐, 뇌 전이됨을 통보받음. 항암 화학치료 불가하며 방사선 치료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의 치료 불가하여 7월에 호

스피스 권유받고 가정으로 퇴원하였다가 10월 28일 본원 입원함.

<입원 시 상태>

- 활동 상태: ECOG2
- 의식 상태: 명료
- 배변 관련: 변비
- 활력 징후: 혈압, 체온, 맥박, 호흡수는 정상 범위
- 신체 검진: 복부 통증, 섬망 증상(간헐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관찰됨.)
- 삼관: 없음

진료 부분

<병력>

- 2021.04.05 좌측 뒤꿈치 종괴로 타병원(T 병원)에서 종괴 제거술 및 생검술 진행하여 흑색종&폐 전이 소견 들음.
- 2021.04.19 큰 병원(대학병원) 옮겨 재검사 진행 상 흑색종 말기, 폐, 뇌 전이 진단함.
- 2021.5.14~7.14 항암치료
- 2021.8.26~9.8 방사선치료 및 스테로이드 치료 진행하였으나 효과 없어 중단
- 2021.10.28 통증 심해져 호스피스 입원함.

<주 증상에 따른 진료 과정>

1. 전신, 복부 통증 (사정)

- 말기 암으로 인한 전신, 복부 지속적인 통증
 - 돌발성 통증 시 신음소리 및 인상 찡그리며 침상에서 안절부절 하는 모습 관찰되며 돌발성 통증 빈도 증가
 - 복부 통증 및 불편감으로 식이 섭취 불량
- (치료 계획 및 중재)**
- NRS 5~7점으로 목격한 내장성 통증 호소함.
 - 돌발성 통증으로 Daily 3~4회 Morphine 5mg 1A IV 투약함.

- Continuous Morphine 10mg start 하여 현재 40mg 증량하여 수액에 혼합하여 투약 유지
- 통증으로 인해 섭취량 제한적임.

(반응)

- NRS 3점 이하로 감소함.
- Continuous Morphine & 돌발성 통증 시 투약 되는 용량 증량 후 daily 1~2회 감소함.
- 통증 조절 후 평온한 표정과 침상 내 안정 중임.
- 복부 통증 완화되어 소량의 물과 요플레 정도 섭취 가능함.

#2. 호흡곤란

(사정)

- 말기 암으로 인한 폐 전이
- 호흡곤란 호소함
- 간헐적 기침 증상과 가래 있음.

(치료 계획 및 중재)

- 산소포화도 저하로 O2 3L/min nasal prong 유지 중
- 가슴 답답함 호소로 Morphine 5mg iv 투약함.
- 가래로 끈적이고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oral suction 2~4회 및 뮤코스텐 TID IV 투약함.

(반응)

- 산소 적용 후 SPO2 95% 이상 유지됨.

- IV Morphine 투약 후 가슴 답답함 및 호흡 곤란 완화됨.
- 가래 끈적임 호전되어 oral suction 1~2회 감소됨.

#3. 질환으로 인한 피부병변 감염 위험성

(사정)

- 질환으로 인한 피부 병변 (전신 특히 복부, 가슴, 등, 두부 주변) 관찰됨.
- 피부 병변 부위 터져 진물 나옴.
- 자극할 시 통증 발생 및 움직임 제한

(치료 계획 및 중재)

- 매일 회진 시 피부 병변 부위와 피부 손상 정도를 사정하고 환자의 피부 청결도 관찰함.
- 환자 보호자에게 피부 접촉 전, 후 손 씻기에 대해서 교육
- 출혈 및 감염 예방 위해 메디폼 드레싱 및 멸균 포 적용
- 예방적 감염 위해 항생제 사용한다.
- 필요 시 진통제 투약

(반응)

- 피부 병변 부위 열감, 고열, 통증 관찰되지 않는다.
- 피부 병변 부위 출혈, 진물 관찰되지 않고 청결하게 유지된다.

간호 부분

<간호학적 진단>

#1. 악성 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 “온몸이 다 아파요...”, “불안한 건지 아픈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주로 복부와 전신 통증 호소함.
- 돌발통증 시 통증 점수 : NRS 4~5점
- Continuous morphine 15mg 10cc/hr로 투여

상태에서 prn) 모르핀 주 3mg 2~4회/일 투여됨.

(계획 및 중재)

- 통증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 통증의 양상에 따라 Continuous morphine 15mg → 20mg → 30mg로 증량함.
- prn) 모르핀 주사 용량 3mg → 5mg로 증량함.
- 통증의 악화요인과 완화요인을 사정하고 약

물적, 비약물적 통증 조절 방법에 대해 교육함.

- 비약물적 중재(동영상 시청, 음악요법, 자세변경, 말동무, 심호흡 등)를 통해 통증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

(평가)

- 통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
- 통증이 NRS 4~5점에서 1~2점으로 감소함.
- 심리적 불안이 통증 악화요인으로 확인되어 항불안제(경구) 추가하였고 환자는 정상적인 수면과 정서적 안정을 찾음.

#2. 불안

(사정)

- “옆에 있어 주면 안될까?,” “놓지 말고 여기 있어.”
- 처치 후 병상 떠나는 것에 대해 “가지 마, 불안하고 답답해.”라고 말함.
- 밤 동안 자주 깨어나 침상 주변으로 간호사 혹은 완화의료 도우미 부르는 모습 관찰됨.
- 보호자 부재 시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 관찰됨.

(계획 및 중재)

- 불안의 악화 요인과 완화 요인을 사정함.
- 수면 양상을 사정함.
- 밤에 깨어나 불안할 경우 도움 요청하도록 침상 난간에 콜벨을 걸어두고 사용방법을 교육함.
- 편안한 환경을 위해 야간에 침상 수면등을

밝혀둠.

- 현재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함.
-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무비판적인 태도로 지지함.
- 자주 방문하여 손잡아 주기, 이야기 들어주기 등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
- 팀 회의를 통하여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함.
- 가족에게 환자의 현재 불안감에 대해 공유하고 자주 면회 오도록 격려함.
- 가족이 방문하지 못할 때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여 가족들의 관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함.

(평가)

- 지속적인 방문, 스킨십, 경청 등을 통해 환자가 웃으며 고맙다고 말함.
- 자신이 느끼는 기분, 감정을 간호사 또는 완화의료도우미에게 말로 표현함.
-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가족들에게 편지 쓰기, 영상 남기기 활동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
- 약물(항불안제) 추가 후 밤 동안 깨어나는 횟수 줄어들었으며 낮 동안 치료계획에 긍정적으로 참여함.
- 보호자들이 직장 문제로 평일에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말에 방문하여 함께 있어줌.

사회복지 부분

<개인력>

- 강화도 출생, 9남매 중 일곱째, 초졸, 무직 (전: 농부), 기혼, 강화군 거주, 내향적 성격
- 배우자와 잦은 다툼 있음.

- 약 30년 전 인천에서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배우자가 '신앙촌이라는 종교생활(이단)에 빠져 가정생활,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채 종교에만 관심 두어 아들과 함께 강화도로 거주

지 옮겨 현장직, 품앗이, 벼농사 일함.

- 아들 내외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2020년 배우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종교 활동할 수 없어 아들의 집으로 들어옴.
- 가정에 충실한 자부에게 고마운 마음 큼. 자부와 각별히 친밀하며 사이 좋으며 (아들의 자녀) 손자들을 어려서부터 기저귀 케어부터 직접 돌보았기 때문에 애정이 각별하여 입원 후 두 손자들을 그리워함.

<가족력>

* 원가족

부모: 모두 사망함.

형제

- 다섯째, 아홉째 형제만 생존하였으며 모두 사망함.
- 여섯째, 누나(사망): 흑색종으로 사망함.
- 다섯째, 형: 80대 후반, 기혼, 부산 거주, 환자의 딸기 병식, 예후 인식 있음.
- 아홉째, 남동생: 70대 중반, 기혼, 강화도 거주, 환자의 딸기 병식, 예후 인식 있음. 현재 전립선암 투병 중임.

* 현가족

배우자 (75세)

- 강화도 출생, 1남 3녀 중 둘째, 초졸, 무직(전: 자영업-옷가게 운영), 기혼, 강화군 거주, 신앙촌, 외향적 성격.
- 30대 때 자궁암 초기로 수술 받음.
-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는 성향임.
- 30년 이상 '신앙촌'이라는 종교에 빠져 가정 돌보지 않고 자영업 운영하며 모든 돈은 종교 활동에 모두 투자하며 혼자 인천에 거주하였으며,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신앙촌에서 노인들 종교 참여 금지함과 동시에 신체

적으로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들의 집으로 내려옴.

- 자녀들이 환자의 암 병식과 예후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어디 아파?”, “어디가?”라고 묻기만 하며 본인의 생활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 보임.
-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아.” 배우자와 모든 자녀들과 갈등 관계에 있음.

첫째 자녀, 딸 (57세)

- 고졸, 이혼, 인천시 서구 거주, 무직(전: 자영업), 무교
- 서류상 2번 이혼, 자녀 1명 있으나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임.
- 반복되는 사업 실패와 무책임한 수습으로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번 끼침.
- 현재 불상의 이유로 시력을 잃어 장애인 등록되어 장애인 LH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음. 생계비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수급비 받아 생활하고 있음.
- 부친(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잘하고 싶다.”고 하여 자청하여 환자 돌봄 하려고 했으나 현재 대상포진으로 11월 2일 방문 예정이라고 하나 2021년 12월 1일까지 방문한 적 없음.

둘째 자녀, 딸 (50세)

- 고졸, 자영업(공장 운영), 기혼, 검단 거주, 불교, 내향적 성격(여장군)
- 배우자와 함께 자영업(공장) 운영 중임.
- 배우자(50대)는 불교, 내향적 성격이며, 슬하에 2남(24세, 20세)의 자녀를 둬.
- 큰아들은 부모님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캐나다 유학 중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잠시 한국 귀국함.
- 부부 사업으로 환자 돌봄 어려움.

셋째 자녀, 아들 (48세)

- 고졸, 우체부 배달원, 기혼, 강화군 거주, 무

- 교, 내향적 성격
- 주 의사 결정자임.
- 결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친(환자)과 함께 거주함.
- 매주 금요일~일요일 환자 돌봄.

자부 (48세)

- 강화도 출생, 고졸, 전업주부, 무교, 외향적 성격임.
- 결혼 이후 계속해서 환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시아버지(환자)와 며느리 사이가 각별히 사이 좋음.
- 슬하에 2남(16세, 14세)의 자녀를 두었으며 환자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줌.

<사정>

- 환자는 입원 시 “마음이 복잡해.”, “집에 가고 싶어.”라고 표현함. 집에 가고 싶은 이유를 묻자, “30년 살던 집을 떠나...”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오게 된 것에 대해 불안감 호소함.
- 환자는 아들 부부 내외와 두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임. 환자는 “내가 손자들을 키웠지. 기저귀고, 분유고 다 내가 갈고, 먹였어. 너무 보고 싶어. 눈에 선해. 눈에 아른거려.”라고 하며 손자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말들을 쏟아내며 눈물 글썽이는 모습 보임. 환자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함께 사는 손자들”이라고 함.
- 입원 후 3일 상주 이후 가족들의 집안 사정으로 5일간 보호자 부재하게 됨. 환자는 같은 병실 보호자들이 다른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본인의 곁에 보호자 부재한 것에 대해 쓸쓸함 표현함. 환자는 보호자들의 부재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냐는 질문에 “응. 그렇지.”라고 대답하며 자녀들의 사정을 알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야.”, “늘 내 곁에 있어줄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라고 말하며 본인 삶의 회의감 표현함.

- 무교인 환자에게 영적 돌봄으로 신부님의 안수기도에 대해 안내함. 환자는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영적 돌봄 요청함.

<개입 및 결과>

-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입원해 있는 동안 호스피스팀 모두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을 안내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낄 수 있도록 함. 실질적으로 환자를 자주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병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독려함. 호스피스팀의 정성에 “여기 있어도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모습 보이며 고마움 표현함.
- 환자와 함께 손편지 작성하여 자부를 통해 손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환자가 두 손자들에게 손편지 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인화하여 함께 전달하여 환자가 손자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 손편지를 쓰는 동안 환자는 기뻐할 손자들을 생각하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며 완성한 편지를 들고 손자들에게 보낼 사진을 찍으면서도 “아이들이 행복해하겠어.”라고 말하며 모습 보임. 손자들에게 전달한 환자의 편지와 액자에 담긴 사진을 보고 손자들은 영상 편지로 환자에게 사랑과 감사의 인사 전하여 환자에게 손자들의 모습 보여줌. 환자는 손자들이 본인이 쓴 편지와 사진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글썽이는 모습 보임. 또한, 손자들과 자주 영상 통화 할 수 있도록 하여 행복감, 안정감 느낄 수 있도록 함.
- 환자와 함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시간 가짐. 5일간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았던 자녀들의 사정에 대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며 서운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 환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자녀들과 상의하며 환자의 불안감을 위해 돌봄 교대 할 수 있도록 독려함. 아들 부부 내외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과도 환자의 상태 공유하여 함께 돌봄 교대 계획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며 최대한 자리 비움 줄일 수 있도록 계획 세움. 환자는 자녀들의 방문에 기뻐하며 편안한 모습 보임.

- 매주 원목실 신부님 연계하여 영적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도 받으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모습 보임. 기도 후 신부님의 양손을 잡고 “감사합니다.”라고 매번 인사하며 영적인 편안함 느낌. 또한 수시로 원목실 수녀님이 방문하여 면담과 기도를 제공하여 삶의 허무함, 외로운 감정에서 해소됨을 표현함.

원목 부분

<종교적 접근>

실제적으로 부인의 올바르지 못한 종교 생활로 인해 환자분에게 종교에 대해 어떻게 접근될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혹여 종교에 대해 거부반응이 있으실는지…

첫 만남은 1인실에서 환자가 수면 중에 보호자인 며느리와 만남을 가졌는데 환자는 삶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을 때 ‘내가 왜 죽느냐?’며 강하게 거부하였고, 지금도 치료받고 집으로 퇴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일부터 4인실로 옮기게 되면 병실 내 환자들을 보면서 당신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하였음…

종교적 접근보다는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평화로움을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영적 돌봄>

4인실로 옮긴 후 병실 방문 때마다 늘 수면

중이시던 환자분이라 많은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또렷한 의식으로 깨어 있어서 몇 말씀 나누는 중에 키우시던 손자들에 관해 말씀을 많이 하셨다. 손자들의 심성이 착하다고 하시면서 밝은 기운으로 말씀하셨다. 손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원목자는 손자들의 심성이 착한 것은 키워주신 할아버지의 심성을 닮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살아온 삶의 공로에 대해 축복을 드리니 미소를 지으며 조금은 편안해하셨다.

병실 방문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에 감사드리며 축복을 드렸더니 손을 꼭 잡으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그 손길이 따뜻하였다.

치료받고 집으로 가시겠다는 의지가 점점 약해지시면서 원목자를 바라보는 눈길에 힘이 없으시지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